CHINA

중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CHINA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주간 심층이슈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CCTV-KBS 공동 다큐멘터리 프로젝트 보고서』

◎ 작성 취지

-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중국CCTV와 한국KBS가 공동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 성공적으로 방영을 마침
- 한중 공영방송국 간의공동 프로젝트의 진행과정과 성과 및 향후전망에 대한 CCTV의 생각을 정리하였으며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반응과 작품 완성도 등을 분석하여 향후 한중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출처 : 스스룬 총프로듀서 (CCTV9다큐채널)

◎ 작성 순서

1. 「중국에서 다큐멘터리가 시사하는 의미」
2. 「CCTV-KBS 한중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의 성과」
3. 「CCTV-KBS 한중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의 향후 전망」

1. 중국에서 다큐멘터리가 시사하는 의미

- 2011년은 중국 다큐멘터리 산업의 활성화로 다큐멘터리 산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음. 2011년 1월 1일 중국 중앙 방송국(이하 CCTV) 다큐멘터리 채널이 중국어와 영어로 동시 방송을 시작. 중국 내부에선 "중국을 알리자"와, 대외적으론 "세상과의 소통"이란 개념으로 중국 유일의 위성 다큐채널, 중국 첨단 플랫폼과 국제 미디어 플랫폼을 조성함

- 다큐멘터리 채널의 방영은 이미 다큐멘터리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새로운 각도로 전환시켰고 각계의 지도자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다큐멘터리에 대한 지지를 나타냄

- 지역 다큐도 점차 세분됨. 상하이 다큐채널은 상해 현지에서 방송하는 점을 이용, 기업화 운영 방식의 혁신적인 전환은 지역한계를 넘어 수평적 발전을 이루게 함. 중국교육방송의 제3채널, 충칭(重庆)방송의 과학교육채널, 후난(湖南)방송의 찐잉(金鹰)다큐채널 등이 성장했고 베이징 고화질(高清) 다큐채널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방송을 시작함. 랴오닝(辽宁)방송의 북방채널은 다큐멘터리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현지 시청자에게 접근하는 종합채널로, 접근성, 현지화, 오락성을 강조한 형식을 개발해냄. 이러한 점에서 다큐멘터리에 대한 사회각계의 인식이 달라짐

- 일부 지방정부, 대기업과 사회조직이 다큐멘터리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많은 사회자본이 다큐멘터리산업에 유입됨. 이와 동시에 민영 미디어 기관이 활발해지고 다큐멘터리 제작량과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함.

- 중국다큐멘터리발전연구팀의 채널 통계(위성TV와 다큐전문채널 한정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중국다큐멘터리 첫 방송 총량이 16,000시간, 프로그램제작이 약 8,700시간이고, 83개의 TV 프로그램 중 6개가 재방송됨. 시장 내 총 투자액이 8억 위안, 총수입은 10억 위안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이면서 신해(辛亥)혁명 100주년이기에 주류사상을 나타내는 풍조가 두드러짐. 10부작 다큐멘터리 《기치(旗帜)》는 CCTV의 우수작으로 꼽힘. 《중국삼협(中国三峡)》, 《이상조요 중국(理想照耀中国)》,《정기신중국(奠基新中国)》, 《천추홍암(千秋红岩)》, 《청춘방가(青春放歌)》 등의 작품들 역시 다방면으로 중국의 혁명을 찬미한 작품들임. 신해혁명 100주년 기념 작품 중 《신해(辛亥)》, 《천하위공—손중산1911(天下为公——孙中山1911)》,《대신해(大辛亥)》, 《민적1911(民的1911)》 등이 제각기 특색을 나타냄

- 2011년 한 해 다큐멘터리 분야는 더욱 확장되었고 점점 더 정교하게 제작됨. 《바다로 가자(走向海洋)》는 중국의 해양의식을 나타냈고 《남해 1호(南海一号)》는 해저에서 함몰된 함선을 인양하는 과정을 촬영. 《루브르 박물관에서 자금성을 만나다(当卢浮宫遇见紫禁城)》에서는 동서양 문명 간의 교류를, 《교육, 변할 수 있을까(教育能改变吗)》에서는 모든 가정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토론하고, 《함께(在一起)》는 AIDS 환자들의 상황을 중점적으로 다룸

- 2011년의 각종 문화형태의 다큐멘터리는 장단점이 있음. 주류문화는 의식형태의 강력한 작용을 주도하고 넓은 주제의 다큐멘터리들은 역사와 국제적인 시각에 중점을 둠으로써 엘리트문화와 소비문화가 주류문화로 흡수되는 것은 확연해짐. 영상의 품질과 시청각적 효과가 높은 수준에 달하였고, 상황재연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지고, 극적 표현이 강화되었으나 이와 달리 진정한 예술 관련 다큐의 생산은 저조해짐. 3D 애니메이션과 연출이 극도로 많아져 남발되기까지 했지만 화려한 기술로 내용의 부실과 사상의 결핍함을 감추는 데에만 급급했음

- 2011년은 대중문화가 시장의 주축이 되는 해였음. 다큐멘터리는 소비문화의 일종으로 스토리텔링, 재미, 시각적 효과를 이용하여 대중을 끌어들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은 시각적 다채로움을 느끼고 줄거리에 몰입할 수 있게 함. 사람들은 대중문화 관련 다큐를 보고 자연을 느끼

고 역사를 체험함

- 다큐멘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모든 매체 중 가장 손쉽게 교류와 소통을 가능케 하고 중화문명의 계승과 국제문명교류에서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공공문화의 특징도 매우 두드러짐 : 중국 내에서 다큐는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사회심리의 중요한 매개체임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문화산업창조의 한 부분임

2. CCTV-KBS 한중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의 성과

- 한중간의 다큐멘터리 교류는 최근 몇 년간 더욱 빈번해짐. 2006년 중국 다큐멘터리《꾸공(故宫자금성)》과 《대국굴기(大国崛起)》가 한국에 방영되고 한국의 《누들 로드(面条之路)》가 아시아 태평양 방송연맹에서 대상을 수상한 후 중국에 방송되어 사람들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음. 2011년 CCTV다큐채널이 방송된 후 《누들로드》와 《아무르강: 동북아 생태 대탐사(阿穆尔河：东北亚生态大勘探)》가 연이어 방송되고 한국은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舌尖上的中国)》을 방영하여 각국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음. 이로 인해 한중 방송간의 이해와 신뢰도가 더욱 깊어짐

- 2011년 7월 25일 CCTV의 뤄밍(罗明) 총편집장과 한국방송공사(이하 KBS)의 김인규사장은 《CCTV-KBS 방송영상물 분야 공동협약(CCTV-KBS合作备忘录)》을 체결함. 협약서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1년 8월부터 2012년 9월 동안 CCTV다큐채널과 KBS가 합작하여 《왕징의 한인들(望京)》, 《신중국인뎐(新中国人传)》, 《한강의 기적(汉江奇迹)》, 《13억의 질주(中国的力量)》등 한중 수교 20년간 두 나라의 발전사에 대한 다큐와 위성토크쇼 《통(通)하다》를 제작함. CCTV다큐채널의 창설이래로 해외공영방송국과의 대규모 합작은 최초이며, 양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진간의 첫 합작이기도 함. 2012년 9월 7일, CCTV다큐채널과 KBS 다큐멘터리국이 한중 수교 20주년 공동기획

평가좌담회를 열고 향후의 협동체계를 주제로 토론함. 양측 모두 합작을 성공적이라 칭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경험을 쌓음. 미래에 더욱 심도 있고 규모 있는 합작시스템을 기대함

프로그램 제작과정

- 2011년 8월, CCTV다큐채널과 KBS가 공동으로 유학생세미나, 전문가세미나, 창작워크샵 등이 포함된 연구토론회를 개최함. 양측 방송국이 합작의 형식과 프로그램의 방향에 관해 토론 및 확인과정을 거쳐 2011년 하반기에 1기 스튜디오프로그램이 제작되고, 각각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 2012년 상반기 두 방송국은 각각 3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함

- 2011년 10월, 《통(通)하다》 대형스튜디오 제작진과 《왕징의 한인들》, 《신중국인뎐》의 제작팀이 각각 CCTV 다큐채널과 KBS에 형성됨. 양측 모두 가장 우수한 제작진들을 선별하여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90분짜리 스튜디오 프로그램과 60분짜리 다큐멘터리 2편을 제작함

- 2012년 1월 1일, 《통(通)하다》, 《왕징의 한인들》, 《신중국인뎐》이 CCTV 다큐채널과 KBS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송되어 비교적 높은 시청률과 좋은 평을 얻으며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킴

프로그램 형식과 합작방식의 혁신

- 《통(通)하다》는 서울과 베이징의 스튜디오를 위성연결을 통해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어 연출한 프로그램임. 프로그램은 한중 수교회담 교섭자와 한중체육대항대표 그리고 한중 경제무역대표, 첫 한중 국제 커플 등을 게스트로 초청하여 그들의 생생한 인생의 발자취와 역사를 결합하여, 한중 수교 20년 동안의 흐름을 정리하고 현재의 화면들을 연출해냄. 이는 두 나라 방송국 간의 최초 실시간 연결로 제작된 스튜디오프

로그램임. 제작과정에서 양국의 제작팀은 온라인 회의, 전화 회의 등의 방식을 이용해 소통하였으며 언어와 창작이념, 업무방식에서의 차이 등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여 프로그램 제작부터 마지막 완성까지의 협력을 이루어냄

- 《왕징의 한인들》은 CCTV다큐채널에서 제작을 맡아 왕징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을 촬영한 다큐멘터리임. 중국에서 처음으로 태권도 도장을 연 김기철 씨, 처음으로 한국식당을 연 박양숙 씨, 처음으로 한글신문을 제작한 이상운 씨 등을 촬영함. 그들의 생활과 지난 삶의 여정을 촬영을 통해 한중 수교 20년간 중국 고속성장이 재중한국인에게 미치는 "기회"에 대해 재조명함. 《신중국인뎐》은 재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부산 교향악단의 지휘자부터 대우상사의 신입사원이 되기까지, 제주대학교의 교수부터 안동시의 공무원이 되기까지, 한중 수교 20년간 재한 중국인의 투쟁과 삶의 여정, 그 새로운 면모를 조명함. 보다 문학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양국 국민의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양국민간의 이해를 도모하며 다양한 시각을 제시함

매체들 양호한 반응 보여

- 2011년 12월 19일 CCTV-KBS 한중 수교 20주년 축하 특집 프로그램의 첫 방영식이 땨오위타이(钓鱼台)호텔에서 진행됨. 신화사(新华社), 중신사(中新社), 중국일보(中国日报)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 중국국제방송국(中国国际广播电台), 중앙인민방송국(中国国际广播电台), 신경보(新京报) 등 30여 개 중국 내 주요매체들이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보도, 《통(通)하다》와 《왕징의 한인들》 등 프로그램들을 소개함

- 《인민일보(人民日报)》(해외판)은 12월 26일 자 신문에서 "역사적인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CCTV와 KBS한국방송이 일련의 프로젝트를 추진함. 본 프로젝트에는 위성토크쇼 《통(通)하다》와 두 편의 다큐멘터리: 중국 측이 제작한 《왕징의 한인들》, 한국 측이 제작한 《신

중국인연》을 포함. 장정연과 권병현 두 외교관에 관한 스토리, 양국 바둑계의 대표적 라이벌이자 친구인 니에웨이핑(聂卫平;섭위평)과 조훈현의 우정, 한중 국제탁구커플 안재형과 초지민의 러브스토리 등의 스토리와 감동이 있는 장면들을 감상할 수 있음.

- 이규형 주중한국대사는 "이번 한-중 방송국 간의 합작프로젝트는 일종의 혁신이며,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프로젝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함. CCTV의 뤄밍 총편집장은 한-중 양국제작팀의 3개월간의 협력으로 완성된 TV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는 'CCTV와 KBS가 한중 수교 20주년을 위한 귀중한 선물'이라 함

3. CCTV-KBS 한중 다큐멘터리 공동제작의 향후 전망

- KBS와 한중 수교 20주년 기념 특집 2차 제작은 양측이 각각 3부작을 맡음. CCTV다큐채널이 《한강의 기적》을, 그리고 KBS가 《13억의 질주》를 제작. 그 중, 《한강의 기적》은 1,500여 개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스타 메이킹 시스템, 한국 드라마가 창출해 낸 산업사슬, "한과 눈물"의 특징을 담은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중국의 시각으로 한국문화산업의 진흥과정을 해석함. 한-중 두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다룬 이 다큐멘터리는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다큐채널 황금 시간대에 방송됨. KBS다큐멘터리국의 김규효 국장은 이 작품에 대한 한국에서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외부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성장과 변화가 한국 국민에게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고 함

- 《13억의 질주》는 한국의 시각에서 묘사한 화교의 조상-객가인(客家人)과 중국인들의 평범한 생활 모습, 아프리카와 남미에 진출해 있는 중국기업들을 방송함. 이 다큐멘터리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CCTV 다큐채널에서 황금 시간대에 방영되었으며 10월 휴가기간에 재방송되고 중국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냄

- 2012년 9월 7일, CCTV 다큐채널과 KBS 다큐멘터리국은 한중 수교 20주년 공동기획 평가좌담회를 개최하고 양측의 향후 합작시스템에 대해 논의함. KBS다큐멘터리국의 김규효 국장, 한중합작프로젝트의 박복용 주임,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즈니스지원본부의 서병대 본부장 등이 참석함. 양측은 이번 합작의 성공경위를 정리하며 미래의 합작방향에 관해 대화를 가짐. 김규효 국장은 이번 합작으로 두 나라 간 국민문화교류의 주요 방침들을 강화하고 양측 다큐멘터리 제작진 간에 더욱 나은 소통과 합작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함. 다큐채널의 리우원(刘文) 총책임자는 이번 한중 두 나라 다큐팀의 합작은 매우 성공적이며 정식합작 플랫폼이 설치되어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서로의 기술을 배워서 양측 모두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하기를 소망함